가톨릭마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요한 14,27)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전화 055.249.7072~3 팩스 055.249.7117
주소 5172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메일 media2@cathms.or.kr

제2369호 2019년 8월 11일 연중 제19주일

여러분도 '인싸'가 되고 싶으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이 '인싸'가 되고 싶어 한다. '인싸'는 '인사이더(insider)'의 줄임말로 어떤 무리 안에 잘 섞이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많은 사람은 '아싸(outsider)'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인싸'로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느님에게 '인싸'가 되어야 한다. '인싸'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인싸 되는 법'을 치면 된다. 만약 하느님에게 '인싸'가 되는 법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펼치면 된다.

오늘 1독서인 지혜서가 알려주는 '인싸 되는 방법'은 이러하다.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지혜 1,1) 선량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곧 의인일 것이다. 지혜서는 보상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의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

2독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소위 하느님의 '인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에 대한 선량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인싸'였지만 믿음 속에 죽어 갔다. 또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기며 끝까지 이방인, 나그네로 머물렀다. 믿음으로 '인싸'가 된 이들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아싸(outsider)'를 자처하며 죽어갔다. 그 이유는 세상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머물기 위함이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가진 것을 팔아 세상에서 자선을 베풀라고 하신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종들은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자신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된 것 마냥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는 상처 주는 '인싸' 노릇을 한다. 복음 안에서 주인이 오는 때는 아무도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죽음의 시간, 심판의 시간일 것이다. 죽음이 오면 내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하지만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는 하느님의 '인싸'가 된다면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으로 '불멸성'을 얻게 된다. 지혜서는 이 불멸성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싸'가 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지혜 6,19)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인싸'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친다. 마치 '인싸'가 되지 않으면 버림받고 잊혀지며 죽는 것처럼 말이다. 세상에서 '인싸'되기를 그만둬 보자. 남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대신 피 터지는 '인싸 경쟁' 밖으로(outside) 나와서 하느님이 계신 성경 안으로(inside) 들어가 보자. 여기에는 참 '인싸'가 되는 방법이 많이 들어 있다.

정재덕 안토니오 **신부** | 명서동본당 보좌

주일 전례

입 당 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본 기 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 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제 1 독 서	지혜 18,6-9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 2 독 서	히브 11,1-2.8-1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 음	루카 12,32-48
영 성 체 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나귀왕자 메시아10(마지막). 사랑의 시선2

진례와 신앙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내가 바로 공주야. 나라니까. 바로 나야. 나 못생겼어. 이제 됐니? 난 아주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모습이었어. 매일 해가 지고 나면 이렇게 변한단다. 난, 명색이 공주잖아. 세상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공주가 어딨냐구.
밤이면 이 모습, 낮이면 저 모습,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화, 슈렉)

크고 화려하고 밝지 않아도, 작고 수수하며 어두운 것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좋았습니다.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공주병이 아닙니다. 공주는 이만큼 예뻐야만 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공주병입니다. 밤마다 변하는 흉한 모습을 가진 피오나는 스스로 공주 자격이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 '내 모습에 대한 나의 시선'을 봅니다. 나 스스로 당당하고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은 그런 나의 시선을 보고, 나를 사랑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할 것은 모습이 아닌 시선입니다.

사랑의 키스를 받는 수동적 순간이 아닌, 예쁘지 않은 자신과 슈렉을 사랑하고 키스를 받아들이는 주체적 순간, 피오나는 본래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창세 3,11)

피오나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일러 준 이는 피오나 자신이었습니다. 공주병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눈.부.시.게. 드러납니다.

227차 꾸르실료

성모님의 몽소승천 축일과 민족 해방

오늘은 성모님의 영광스런 몽소승천과 민족 해방의 날인 광복절이다.

"여자의 몸에서 탯줄을 달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피할 수 없다"는 교리에 따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원죄가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교리에 맞지 않는다. 또 하나,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그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야 한다"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과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의 죽음에 따라 죽으신 후, 그 육신이 썩지 않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승천하셨다"는 교회의 교리는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해 해야 되는가?

먼저 성모님의 무염시태부터 살펴보자. 인간이신 성모님의 탯줄을 타고 나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느님이신 이유는 결국 인간이신 성모님께서 원죄가 없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대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리아가 잉태되실 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원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요한 둔스 스코투스는 그의 선행구속론(先行救贖論)에서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므로 마땅히 원죄가 있어야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원죄에서 면제해 주셨다」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에 하느님의 특은을 받아 원죄의 물듦이 없이 태어나셨다는 말이다.

교황 비오 9세는 이것을 1859년 성모무염시태 축일을 12월 8일로 선포하시고, 그 후 91년이 지난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께서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이라는 교서에서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 그 영혼과 육신을 지니신 채 하늘의 영광으로 영입되셨다는 것을 믿을 교리로 밝히고 선포하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성모몽소승천 축일을 8월 15일로 선포했다.

다음으로 성모님의 무염시태에서부터 몽소승천도 살펴보자. 이에 따라 원죄 없으신 성모님은 당연히 그 육신이 썩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처럼 죽으신 후 –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자력으로 승천하셨지만 –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셨다고 해서 이를 몽소승천(蒙召昇天)이라고 하는 것이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날 12월 8일이 성모무염시태 날이고, 우리 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절 8월 15일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니, 성모님과 우리 민족의 삶이 닮아 있다. 우리 나라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성모무염시태)를 수호자로 모시고 산다.

허성학 아브라함 **신부** | 태평동본당 주임

227차 꾸르실료 명단

본	당	성명/세례명
가	좌	정미애/글라디스
용	잠	김혜숙/마리아
칠	암	구선자/안나
여	좌	김은수/소피아
함	양	정현숙/크리스티나
완	월	서경숙/율리안나
반	송	김성완/오프루투나
북	신	김미성/아가다
가	음	백경숙/엘리사벳
남	지	박보애/레지나
장	평	안영순/수산나
완	월	박지희/발비나
함	안	안정미/아네스
반	송	홍의숙/비아
함	양	이정선/비비안나
양	덕	김희자/로사
봉	곡	김미경/엘리사벳
팔	용	최숙경/미카엘라
덕	산	강다숙/안나
합	천	김정란/안젤라

본	당	성명/세례명
양	덕	김미숙/리드비나
월	남	김인숙/율리아나
중	동	허정은/소화데레사
옥	봉	하경애/로사
사	파	강성숙/아네스
고	성	김원순/도미니카
대	건	조영민/미카엘라
명	서	박미숙/마리아릴리안
금	산	이혜숙/안나
남	성	이윤미/카타리나
함	안	곽윤점/글라라
사	림	정미자/율리아나
망	경	홍춘이/미카엘라
석	전	이미영/요안나
북	신	김성옥/리디아
여	좌	성경희/안나
중	동	최진주/마르셀리나
양	곡	전혜주/모니카
신	안	민순달/엘리사벳
대	방	이광연/소화데레사

본	당	성명/세례명
명	서	최지우/율리아
경	화	이미영/가브리엘라
옥	봉	김민주/아네스
삼	계	김모영/딤프나
문	산	김정수/루시아
사	파	김민엽/효주아네스
중	앙	황정심/실비아
장	평	김향란/유스티나
진	동	조영숙/마리아로사
창	녕	하옥남/사비나
사	림	이나영/베로니카
상	남	정선순/레지나
고	성	장정현/제노비아
용	잠	양미경/비아
용	원	우지은/소화데레사
장	승 포	박춘녀/로사리아
가	좌	하지훈/수산나
덕	산	황금숙/가타리나
대	방	이종순/데보라
호	계	이정자/그라시아

성모송 묵상

● 이청준 F. 하비에르 신부

마리아!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
임마꿀라따! 흠도 티도 없으신 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무저항 전도체이신 분.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처럼 그 이름만 불러도
제 마음이 치유되고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아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관상의 모후 마리아는 이 인사말을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루카 1,29 참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저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구노의 아베 마리아'를 듣고 부르면서, 성모송 가사를 음미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빠바라기'이시듯이, 성모님은 '예수바라기'이십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심에서 성모 승천에 이르기까지,
생애 시작에는 아빠에게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고
생애 마지막에는 아빠의 품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틴어 성모송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예수스(Iesus)는
예수님을 품고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 성모자상을 연상케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함께
예수님을 품으신 복되신 어머니께 인사드리며
어머니 마리아 안에 계신 복되신 예수님께 인사드립니다.
성모자상 이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성모송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머니 마리아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성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십자가 위의 아드님이 선사해주신 어머니,
당신 아드님의 극진한 사랑과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닮으신 어머니,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리고 당신 품에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형제는 용감했다 4

"형제란 피하고 피하다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라는 안명옥 주교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제가 서로 만나기가 껄끄러운 존재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뜻은 '삶의 가장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좌 신부 시절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좌 신부에게 주임 신부님은 아주 큰 어른이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사목 경험도 풍부하시면서 근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당 주임 신부님과 그 형님 신부님과 제가 식사를 하는데, 형님 신부님이 몇 가지 사소한 잔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엄 있어 보이시던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시쳇말로)끽소리 못하시고 가만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 아, 주임 신부님도 동생이시구나!

저도 이제 신부 생활을 27년 해오다 보니 어느덧 중견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동생은 늘 동생일 뿐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깊어져도 동생에게도 형은 언제나 그렇듯 형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사도들께서 주님의 길을 기꺼이 따라나서면서 형제의 의지가 큰 힘이 되었듯이, 사제 생활을 하면서 형제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말하지 않지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형제 신부님들을 응원합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지키지 못한 약속

김미숙 까리타스 • 시인

영혼의 뜨락
교구 가톨릭 문인회

처음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 주는 인연이고 두 번째 만나는 인연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오늘은 그런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하여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는 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고 육지로 유학을 갔다. 어릴 때부터 수영을 하다가 중학교 시절에는 심한 귀앓이를 했다. 집안 사정은 병원 갈 여유가 없었고, 진물이 흐르는 귀 때문에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신문에 난 병원 광고(광고인지 기사인지 확실치는 않다)를 보고 자초지종을 편지로 썼다. 답장이 왔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다. 몇 달 동안 진주 시장통 안에 있는 병원으로 주말마다 가서 치료받았다. 하지만 치료비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액수였고,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는 간 큰 내 약속을 의사 선생님이 선선히 받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졸업 후 치료비를 마련하여 찾아갈 무렵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였다. 병원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알아보니 원래 의사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이 병원을 새로 개원했는데 시장의 할머니들도 위치는 모른다고 했다. 몇 군데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불편한 짐으로 내 마음에 남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더욱더 또렷해져서 가끔 가슴 밑바닥에서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도 들린다. 조건 없이 나를 치료해주신 것도 감사한 마음이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 만약 내게 누군가 그런 부탁을 했다면 과연 터무니없는 편지 한 장에 화답해서 도울 수 있을까? 세상의 인정이 각박해져 마음마저 시린데 그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슴이 아파온다.

어린 학생의 편지에 화답해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주셨고 언제 갚을지 알 수 없는 약속을 선뜻 받아주셨던, 내게는 유일한 슈바이처였던 선생님. 이제 그분은 돌아가셔서 만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분의 가족이라도 찾아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느님 안에서 편히 사는 지금 나는 과연 남을 도우며 살고 있고, 기도하며 누군가의 아픔을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떠오르지 않고, 가슴에 묵직하게 얹힌 이 짐을 지고 평생 후회하며 살지만, 오늘은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린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원성당 기공식

일 시 : 2019년 8월 17일(토) 11:30

장 소 :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286번지(새 성전터)

주 례 :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교구·본당

■ **교리교사 하계 피정**

일 시 : 8월 17일(토)~18일(주일) 1박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1~3

■ **제441차 가나혼인강좌**

일 시 : 8월 18일(주일) 13: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 시 : 8월 21일(수) 10:00
장 소 : 팔용동성당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 습 : 매주(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 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 매(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 매(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 매(토)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 매(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 매(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 매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 매 2, 4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 매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 매 3주(토) 22:30/ 국산공소
문 의 :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 **청년성가집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안내**

가 격 : 1만5천 원
문 의 : 청년부 055·249·7065
카톡플러스친구 검색 : 청년성서모임 성가집 주문

위원회·기관·단체

■ **8월 체나콜로 월기도 모임**

일 시 : 8월 19일(월) 13:00~15:00
장 소 : 사파동성당
문 의 : 회장 010·9399·5454

■ **198차 ME 주말 안내(2박 3일)**

일 시 : 8월 30일(금)19:00~9월 1일(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 20차 쇄신주말 : 9월 21일(금)~22일(주일)
- 199차 ME 주말 : 11월 15일(금)~17일(주일)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 시 : 매월 첫주(월) 10:00~14:00
장 소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 의 : 055·237·6487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 용 :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 간 : 3월부터 12월
장 소 :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 의 : 055·247·5195~7

수도회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8월 28일~30일, 9월 1일~4일,
9월 18일~20일, 9월 22일~25일,
9월 27일~29일, 10월 3일~6일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064.796.9181

기 타

■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수시 2,676명 모집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40명 모집
원서접수 : 2019년 9월 6일(금)~10일(화)
입학상담 : 053·850·2580

Club Raphael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9일 (29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 9/1,9/29, 10/23 나가사키 4일 (949천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신세계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가톨릭신문투어
▶9/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원
▶9/20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95만원
▶9/24 발칸반도 12일 389만원
▶10/7 유럽 수도원 순례 12일 399만원
▶10/15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380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 세미나

일 시 : 9월 21일(토) 11:00~22일(주일)16:00
장 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 상 :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사람들(선착순, 사전접수자만 참석가능)
대 상 :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회 비 : 오만 원
문 의 : 010·5490·5345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 가톨릭여성회관 독서모임 회원모집

대 상 : 30~40대 여성신자
첫모임 : 9월 4일(수) 19:00 (매월 첫 수요일)
장 소 : 가톨릭여성회관
문 의 : 055·255·5080

제13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자 격 : 등단하지 않은 마산교구 천주교 신자

분 야 : ■ 시 (5편 이상) ■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또는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1편)

접수처 :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심사 및 발표 : 예심과 본심 후 당선자는 개별 통지

응모마감 : **9월 30일(월)** 당일 도착에 한함

기 타 : ①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함
② 작품 말미에 연락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③ 워드로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④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문 의 : 회장 010·9217·0233, 부회장 010·2830·0010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주일) 17:00
문 의 : 010·9992·3443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8월 12일(월) 19:00	월남동성당	아버지 향한 자녀의 길	송진욱 신부(도미니코, 가고시마 현지사목)	송진욱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8월 12일(월) 19:00	반 송 성 당	걱정하지 마라	이춘일(베드로, 성심원)	이정근 신부(요한)	010-9969-5340
진해지구	8월 12일(월) 19:00	중앙성당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김성철(프란치스코, 찬양선교사)	정철현 신부(바오로)	010-7566-9441
청 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8월 17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그리스도의 성혈흠숭수녀회	8월 18일(주일) 14:00~16:00	옥계 본원	010-4872-9430	srasc@hanmail.net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길모퉁이산티아고순례단모집
길순례단 | 9/6~9/15 (10일, 298만원)
모퉁이순례단 | 11/1~11/10 (10일, 298만원)
(의료진/길모퉁이서포터즈동행, 일정외 출발시 별도문의)
가톨릭 이안문화사업단 길모퉁이
www.gil1004.com
055.264.4628 / 010.9876.5000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낱병 1박스 20개
2종 세트 10개 1박스
3종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8월 20일 Asiana Airlines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KOREAN AIR 메주고리예,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10월 12일 Lufthansa 파티마, 루르드, 바뇌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 만원
▶출발 확정·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분도여행사 02.852.8525

savin 성악 스튜디오 T.070. 4384. 8730
예중, 예고 음대 / 입시반
취미일반 이태리유학 소그룹(3명)
blog.naver.com/franz32
조 현 율 프란체스코
마산회원구 양덕1동 주민센터 맞은편 2층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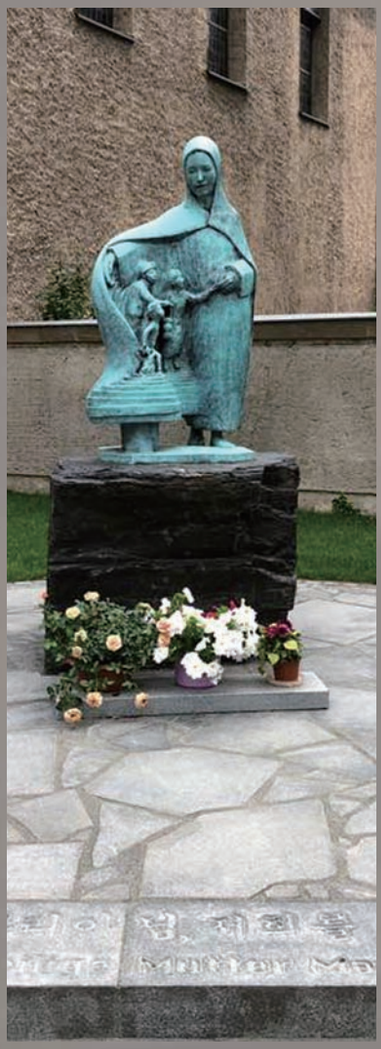
베를린 한인 천주교회

보호자이신 성모상

● 차광호 파스칼 신부

베를린 한인 성당에서 지난 5월 12일 성모상 축복식이 있었다. 봉헌된 성모상 호칭은 '보호자이신 성모님(Schutzmantel Madonna)'이다.

지난날 본당 주보 성인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상을 세우려다 무산된 경험이 있는 베를린 한인 공동체는 이번 성모상 건립을 위해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전임 신부가 공동체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였고, 성모님을 모시기 위한 여건들을 잘 조성하였다. 새 본당 신부가 부임하면서 성모상 건립을 결정하였고, 사목회가 건립위원회를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마산교구장 배기현 주교님의 방문 때, 성모상 건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보고되었고, 주교님께서도 기뻐하며 격려해 주셨다.



성모상 제작은 본당 신자 강동환 베드로가 맡았다. 성모상을 제작하고, 성모님을 모실 자리를 조성하는 데에 일년 남짓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 건립 기금을 모았다. 모금 방식은 몇몇 후원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모두가 기꺼이 잘 참여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별다른 재정적 어려움 없이 건립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성모상은 성모님께서 이곳 독일에 공식적으로 처음 이주해 온 파독 간호사와 광부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감싸서 보호해 주시는 형상으로 제작되었다. 기단은 거친 자연석으로, 낯선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과 고달픔을 나타내고 있다. 고향산천과 부모형제를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어머니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을 모아 바닥돌에는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Unsere Fürsprecherin heilige Mutter Maria, bitte für uns)"라는 기도말을 새겼다. 주변 조경은 평화로움과 생명력을 담고 있는 사철 푸른 잔디만으로 조성하였다

성모상 건립 후, 많은 사람들이 성모상에 관심을 보이고 찾아와 기도한다. 축복식에서 베를린 교구장 하이너 대주교님께서 "본당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회 묘지를 방문하거나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누구나 이제 성모님을 찾아 와 성모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다. 혹시 마산교구에서 이곳 베를린에 오시는 신자분들이 계시면, 한인 성당을 방문하여, 우리들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해 주실 것을 권한다.